

한·중 교류협력사업으로서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Commerce Cooperation as Korea-China Interchange
Cooperation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분석 및 한·중 전자상거래현황 | 참고문헌 |
| III. 한중경제교류협력과 한·중 전자상거래협력 현황 | Abstract |
| IV. 한·중 전자상거래사업의 발전방안 | |

Abstract

E-Commerce in China is being expanded by way of policy for improving e-Commerce such as e-Government though China introduced e-Commerce later than other countries. There is going to be an e-Commerce boom in China owing to IT development and increasing use of Internet. It is estimated that China will be among the world's largest e-Commerce market in the futur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undergone as a part of Korea-Japan-China e-Commerce. The outcome of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less than that of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re must be the development of Vision and roadmap and organizational reform in Government, sufficient budget, consideration of digital divide and improvement of Korea-Japan-China e-Commerce Cooperation for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improve the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a and to improve e-Commerce infrastructures in China by estimating current e-Commer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ng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 and China e-Commerce cooperation.

Key Words : Korea and China, Electronic Commerce, Cooperation,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03-B00011)

I. 서론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그동안 한국전자거래협회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중 전자상거래를 구현하는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세미나와 회의위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한·중 전자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협력사업의 추진도 예산부족과 정부추진조직의 미비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광활한 국토와 엄청난 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인프라 미비와 법적 미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법률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은 더욱 확충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기반이 확충되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 성숙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속히 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한국전자거래협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협력사업의 추진실적도 많지 않은 관계로 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황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회를 확산시키고 한국의 전자상거래관련 솔루션을 중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전자상거래관련 수출실적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한·중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기반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한·중 전자상거래관련 기술력 향상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II. 선행연구분석 및 한·중 전자상거래현황

1. 선행연구분석

중국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최석범 외1인의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¹⁾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분석과 전망 그리고 중국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결제, 물류, 보안 등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최석범 외1인의 “중국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문제점과 해결방안”²⁾에서는 중국전자상거래의 현황분석, 중국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B2C, B2B C2C의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용근의 3인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³⁾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현황,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향후 발전전망을 다루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최석범 외2인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⁴⁾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개요,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과 한국기업의 진출 현황 분석 그리고 한국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전략을 다루고 있다.

이제홍의 “한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⁵⁾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반 현황,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국진출방안을 다루고 있다. 민윤경의 “중국 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환경과 외국기업의 진입현황”⁶⁾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활용현황, 시장환경과 발전현황, 외국 및 한국기업의 진입현황을 다루고 있다. 강영문의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⁷⁾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한국기업의 진출전략을 다루고 있다. 김철진 외1인의 “중국 인터넷시장 진출현황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⁸⁾에서는 중국 인터넷시장 진출현황을 다루고 있다. 최재섭 외3인의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⁹⁾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다루고 있다.

- 1) 최석범·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6.25, pp.187-210.
- 2) 최석범·이재길·엄광열·최해란, “중국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12.30, pp.185-206.
- 3) 이용근·김창봉·김시중·박경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pp.46-68.
- 4) 최석범·이영찬·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pp.141-169.
- 5) 이제홍, “한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5.6, pp.21-40.
- 6) 민윤경, “중국 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환경과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POSRI경영연구』, 제1권 제2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1, pp.131-167.
- 7) 강영문,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연구, 2006, pp.279-298.
- 8) 김철진·박찬주, “중국인터넷시장진출현황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제23집, 경북전문대학, 2005.
- 9) 최재섭·배두환·송호달,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3, pp.143-168.

이병렬 외1인의 “중국 전자상거래 제도구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중국의 정부기관과 절차, 중국의 법제도와 주요쟁점, 정부의 정책대응방안을 다루고 있다. 윤광운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무역분쟁에 관한 연구”¹⁰⁾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분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관련법제의 제정, 중국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사례 분석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박영태 외2인의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한 소고”¹¹⁾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개관,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정책분석과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로서 최석범의 “중국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¹²⁾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정책, 중국 전자상거래관련 법률 현황, 중국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한·중교류협력사업으로서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많지 않은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으며 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주로 한·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현황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 한·중 전자상거래 현황

1) 한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2007년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총 516조 5,140억원으로 지난해 413조 5,850억원에 비해 12.5% 증가하였다. 각 거래주체별로 거래액 및 구성비를 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464조 4,560억원으로 전체의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가 36조 8,010억원으로 7.1%,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10조 2,260억원으로 2.0%,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는 5조 320억원으로 1.0%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

거래주체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18,976	177,810	235,026	314,079	358,451	413,585	516,514
기업간(B2B)	108,941	155,707	206,853	279,399	319,201	366,191	464,456

10) 윤광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무역분쟁에 관한 연구-중국의 전자상거래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3.6, pp.121-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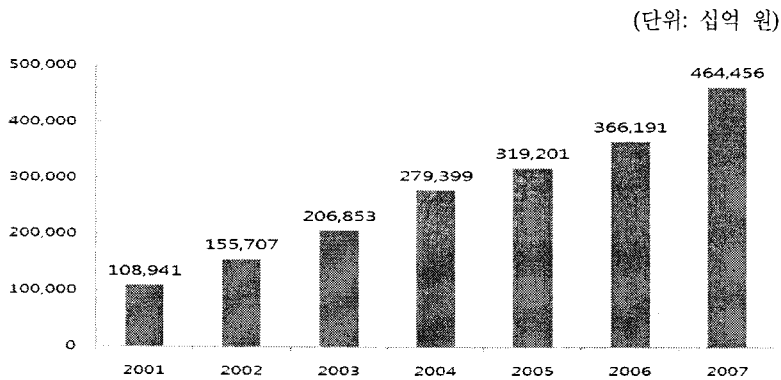
11) 박영태·채명수·정종식,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한 소고”,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pp.121-148.

12) 최석범, “중국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8.3, pp.185-201.

기업·정부간(B2G)	7,037	16,632	21,633	27,350	29,037	34,435	36,801
기업·소비자간(B2C)	2,580	5,043	6,094	6,443	7,921	9,132	10,226
기타	418	427	442	889	2,293	3,826	5,03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www.kosis.go.kr.

(1)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규모의 동향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 e비즈니스백서」, 2007.12, pp.79-83; 통계청 국가 통계포탈, www.kosis.go.kr.

[그림 1] 한국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총 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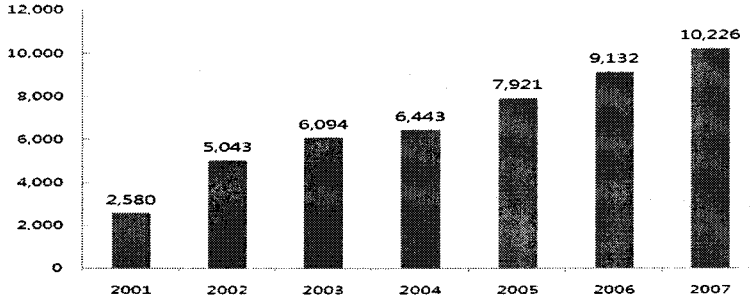
2007년 한국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464조 4,560억원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중 89.9%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2006년 366조 1,910억원에 비해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규모의 동향

사이버 쇼핑물 사업체의 2007년 거래액은 총 15조 7,656억원으로 전년 13조 4,596억원에 비하여 17.1% 증가하였다. 이중 기업·소비자간 B2C의 규모는 10조 2,260억원으로 2006년 9조 1,320억원에 비해 12.0% 증가하였다. 상품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 17.2%,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5.3%,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4.8%,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9.8% 순으로 나타났다.¹³⁾

13)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결과」, 2008, <http://www.nso.go.kr>.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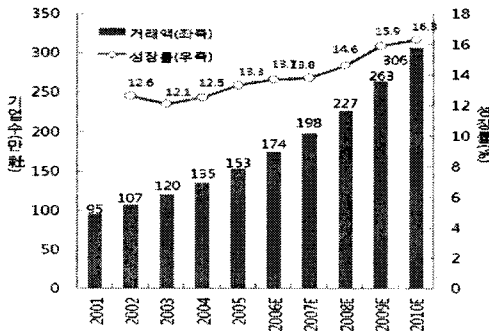
자료: 전계서

[그림 2] 한국의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 총 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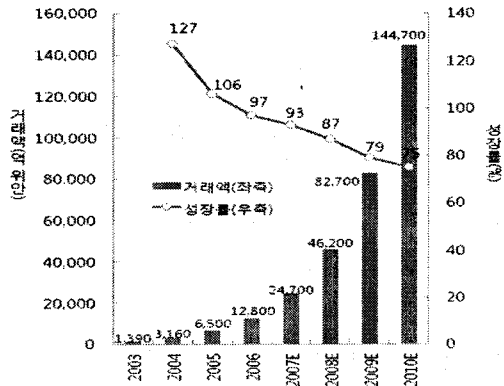
2) 중국

(1)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규모와 동향

(B2B 인터넷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기업 수와 추이)



(중국 B2B전자상거래시장 규모의 추이와 예측)



자료 : 金堅敏, “中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企業のビジネスモデル”, 「研究レポート」, No.284, 富士通總研(FRI)經濟研究所, 2007.2, p.5; iResearch, China B2B E-Commerce Research Report 2005,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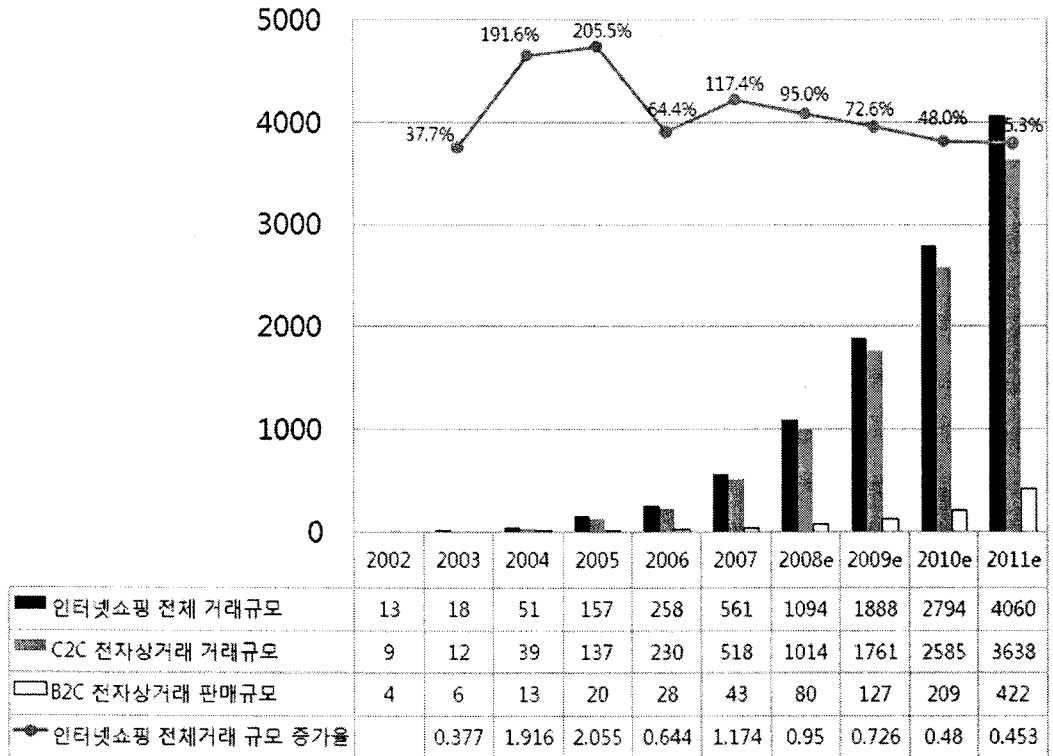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B2B전자상거래시장 규모의 추이와 예측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경제성장 달성이나 정부의 정책추진,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정비, 결제환경의 개선 그리고 거래 주체로 있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자상거래에 대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보화가 지체되고 있던 3,0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에서부터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2)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규모와 동향

(단위 : 억 위엔)



[그림 4] 중국 인터넷 쇼핑물의 B2C/C2C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

중국의 사이버쇼핑몰의 수는 2004년 400만개에서 2007년 9월 현재 약 3,000만개로 급증하였으며 [그림 4]에서와 같이 그 거래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¹⁵⁾ iResearch가 발표한 “2007-2008 중국 인터넷쇼핑 발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중국 인터넷 쇼핑시장의 총 규모는 561억위엔(한화 약 7조 125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의 거래액은 43억위엔으로 총 인터넷 쇼핑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다.¹⁶⁾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물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제조대국으로서 공급의 과잉이 나타나자 새로

14) 金堅敏, “中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企業のビジネスモデル”, 「研究レポート」, No.284, 富士通總研(FRI)經濟研究所, 2007.2, p.5.

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中, 인터넷 쇼핑물 급증”,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9.21.

16) iResearch, 「2007-2008中國網絡購物發展報告」, 2008.

은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집중하고 있고 둘째, 인터넷 상에서의 B2B 기능 다
원화로 인하여 정보, 신용, 온라인 결제, 물류, 금융, 정책 등 분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렴한 원가, 간편한 무역절차 등으로 거대한 이윤
을 창출하고 있으며, 알리바바(www.alibaba.com)와 타오바오(www.taobao.com)가 창출한 일자리만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10만개가 넘는 등 중국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¹⁸⁾

Ⅲ. 한중경제교류협력과 한·중 전자상거래협력 현황

1.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

1) 한·중 경제교류의 필요성

한·중 양국 모두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기술, 금융,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11월 28일 마닐라에서 최
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한·중·일 경제
협력에 대한 정상간의 협의를 가지게 되었다.¹⁹⁾

<표 2>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

	현안	기대효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과잉설비와 중복투자 · 고임금 및 노동집약 산업의 사양화 · 선·후발국사이의 네크라커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구조조정 및 과잉설비해소 · 공장이전 및 기술이전 · 수평분업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의 열위, 저임금에 의존 ·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 기술부족 · 도·농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기술이전 및 인력교육 · 직접투자 및 한국 기술의 도입 · 서부대개발 등 균형발전 유도

2)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

(1) 교역현황

92년 한·중수교이후 16주년이 지난 현재 양국은 경제통상분야에서 급속한 관계증진을 이룩하고 있

17) 网商崛起——2007中國网商發展研究報告

18) 中國線上B2B市場年度綜合報告2007

19) KOTRA,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2005.12, p.25.

다.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제1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26% 증가하였다. 한국통계상으로 92년에 64억불이었는데 06년에는 1,180억불로 증가하여 18.4배로 증가하였고 중국통계상으로 92년 50억불에서 06년 1,344억불로서 26.91배 증가하였다.

<표 3> 한·중 교역규모 추이 (단위 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교역액	314.9	411.5	570.2	793.5	1005.6	1180.2
수 출	181.9	237.5	351.1	497.6	619.9	695
수 입	133.0	174.0	219.1	295.8	385.9	485
무역수지	48.9	63.5	132.0	201.8	232.7	209.0

자료: 무역협회

(2) 한·중 투자현황

중국은 2002년 이후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투자 누계액에서도 2004년 이후 제1위를 차지하였다.

<표 4> 한·중 투자현황 (단위 억불,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대중국투자	금 액	6.38	10.27	16.66	22.98	26.46	33.09	169.8
	건 수	1,049	1,385	1,679	2,142	2,240	2,300	15,909
대한국투자	금 액	0.7	2.49	0.50	11.65	0.68	0.40	17.86
	건 수	812	441	522	597	672	333	5,225

자료: 산자부, 한국수출입은행

3) 한·중 경제교류협력의 과정

(1) 한·중 과학기술협력

1992년 9월에 한·중 양국은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과학기술국장급회의 개최 정례화 등을 기초로 하여 정부간 협력을 지속하였다. 한·중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매년 연구인력 및 기술조사단 상호파견, 과학기술포럼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

하여 왔다. 기술조사단의 상호교환은 1992년부터 2003년간 총 79회, 407명, 신진과학 기술자 상호교환은 1993년부터 2003년간 총 173명이었다. 현재까지 총 9회의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²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중과학기술 관계가 더욱 심화·확대되고 있다.²¹⁾ 따라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표준화를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²²⁾

〈표 5〉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과정

구분	개최일자	장소	주요의제
제1차	1993.11.5	북경	-위성, 우주항공, 레이저, 컴퓨터, 광물채취 등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정
제2차	1994.10.7	서울	-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희토류 금속 등 6개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정 -매년 4개 과학기술 시찰단 파견 확정
제3차	1995.10.4	북경	-레이저, 기계, 신소재, 생물, 농업, 지질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정
제4차	1996.11	서울	-10개 분야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정 -한·중 신진과학기술자 인력교류 -한·중 생명과학 공동연구협력센터 설립운영
제5차	1998.12.10	북경	-생명공학·신소재·기상 등 분야의 공동연구사업 -위성자료의 한·중 공동활용 협력 -연구개발망 연계를 통한 과기정보협력체제 구축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 -국방기술의 민수전환 협력
제6차	2000.11.17	서울	-기상재해 방지기술 협력 -신진과학자 교환연수 -기술조사단 상호교류 -연구개발망 직접연계를 통한 과기정보협력체제 구축 -첨단 기술산업화 벤처기업간 협력
제7차	2002.12.4	북경	-한·중 광기술협력센터 지정활성화 도모 -한·중 민간기관의 과기포럼 활성화 방안 -한국 우수연구센터와 중국 국가중점실험실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사업 협력 -한·중 과학기술 정보교류 촉진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소개 -한·중 과학기술협력 추진실적 평가 -제2차 한·중 과학기술협력실무회의 결과보고

20) 과학기술부, “제9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첨단 기술 협력 로드맵 추진함”, 보도자료, 2007.7.4

21) 최광학,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해야”, 『나라경제』, 2005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p.80.

22) 홍성범, “한·중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 과학기술-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Chindai Journal』,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10, p.11.

제8차	2005.7.25	서울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과 나노분야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하여 한·중 나노공동연구센터 설립에 합의 -친환경적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강화 -과학기술혁신포럼의 매년 교대 개최 합의
제9차	2007.7.3	북경	-협력 로드맵 공동 추진, 기술조사단 확대 등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항공우주, 나노·신소재 분야, 전통의약, 바이오연료 등 환경관련 기술 등 협력강화 분야 선정 -과학기술인력 교류확대 및 지역간 상호협조 강화

(2)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한·중 경제·무역·기술협력공동위원회(한·중 경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9월에 양국 경제·무역 및 기술 협력 촉진 및 동 협력에서 발생하는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교환, 그리고 양국간 기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될 관련 경제 및 무역협정의 이행검토, 각자의 정부에 동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건의, 계약당사자가 상호합의하는 기타 협력방식을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²³⁾

<표 6>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실적

회 의	일 시	장 소	우리측 수석대표
1차	92.12.14-16	북 경	허 승 차관보
2차	93.10.5-5	서 울	선준영 차관보
3차	94.12.20-21	북 경	"
4차	95.11.3	서 울	"
5차	96.12.10-11	북 경	홍정표 차관보
6차	97.12.4-5	서 울	"
7차	98.10.26	북 경	최성홍 차관보
8차	00.3.29	서 울	반기문 차 관
9차	01.12.29	북 경	최성홍 차 관
10차	03.4.25	서 울	김재섭 차 관
11차	04.6.17	북 경	최영진 차 관
12차	05.9.8	서 울	이태식 제1차관

23) 외무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기술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국가기록원, 1992, p.5.

(3)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한·중산업협력위원회는 한·중 양국간의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1994년 6월에 발족한 위원회로서 그 동안 자동차부품, 고화질TV(HDTV), 차세대교환기(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민간항공기 등 4개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동차부품과 ATM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진척이 없었다.²⁴⁾

〈표 7〉 한·중산업협력위원회 개최실적

구분	일시	장소	내용
4차	1998.11.12-13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분야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중 산업협력사업을 평가하고, 동 사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 ·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 · 중국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원활한 참여 당부
5차	2000.4.24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포럼 개최 · 한·중 산업협력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동의 · 중국 서부대개발사업과 관련한 협력 · 양국간 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평가. 향후 양국간 산업협력 발전 방안과 당년도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
6차	2002.6.12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구성, 산업집적지간 교류협력 확대, 산업비교연구를 위한 정보교환 촉진 등에 대해 계속 협의 · 데이터방송기술·생물공학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화 협력, 양국간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10월 중국) 등에 대해서도 협의 · 유연탄 및 희토류 등 자원공동 개발, 진황도 열병합발전소 합작투자사업 애로해결,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산하 전력소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협력방안을 협의
7차	2006.8.29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산업협력 장관회의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 ·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활용하여 협력분야 확대-양국의 산업관련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 · 고유가 및 국제에너지 수급문제와 관련해 정책공조 강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석유비축, 전력, 석유·가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한·중 중소기업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기술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진출 애로해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과제 이행

(4) 한·중투자협력위원회

2000년 10월 주릉지 중국총리 방한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한·중간 투자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간 공식채널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산업자원부,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실무협의회개최(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협의)”, 1999.3.5.

한·중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업자원부(현지식경제부)장관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현 상무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양국의 관계부처·단체·업계 및 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여 중국내 한국진출기업의 경영에로해소 및 제도개선,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참여 등을 논의하는 양국간 투자관련 최고위 협의채널이다.

〈표 8〉 한·중투자협력위원회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차	2002.5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투자기금 설치, 투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민관 합동의 투자설명회의 상호개최 추진 협의 ·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중소기업협력센터’설치 추진 합의 · 한국측은 중국 광둥성 LNG 인수기지건설, 북경-상해간 고속철도건설, 고양시 차이나타운 건립 등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 중국측은 신산업분야와 중·서부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등 요청
2차	2003.7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사업, 서부대개발사업 등 10대 경험사업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 · 상호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인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협의 · 전력사업·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과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 등에 대해 협의
3차	2004.12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중국진출, 공동자원개발, 유통물류, 전자무역 등 2003년 7월 양국정상이 합의한 10대 경험사업추진방안에 협의 · 우리기업의 대중 투자 애로 해소,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요청 등 대중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을 협의
4차	2005.11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의 구축 합의 ·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협의 · 한국측은 중국의 전력(원전, 화전)시장 참여, 유통·물류분야 한·중 협력 강화방안 및 현지투자기업 애로해결 등에 대해 중국측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 · 중국측은 서부대개발, 동북3성진흥계획에 대한 한국측 참여 요청, 산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역투자정보망 구축 제의
5차	2007.4	하남성 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진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토지사용증발 급’ 등 토지애로 사항 해결방안 논의 ·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화력발전, 석유화학, 광물자원개발 등 중국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적인 지지의사 확인

(5) 한·중 우정교류협력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국가우정국과학연구기획원이 2000년 6월에 제1회 한·중 우정 연구교류협력워크숍을 개최한 이래 매년 두차례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한·중 상호간의 문화적인 이해를 확대하고 우정연구분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왔다.²⁵⁾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금융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방안과 우체국 예금 및 보험서비스 운영전략이 다루어지는 등 더욱 세분화된 주제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그 협력과정은 <표 9>와 같다.

<표 9> 한·중 우정교류협력과정

구분	일시	장소	토론 주제
1차	2000.6.25-2000.7.1	서울 제주	한·중 양국 우정사업의 현황과 전망 우정사업의 효율성 향상
2차	2000.10.29-2000.11.2	북경	우정사업의 회계제도 우정사업의 회계제도 및 평가제도 가이드라인
			우체국 전자상거래 및 물류사업 전략 중국우정공사의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전략
3차	2001.4.18-2001.4.24	서울 제주	효율적인 우편네트워크 구축 방안 중국 물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우정사업의 책임경영평가 제도 중국 우체국 성과평가: 경영책임제도
4차	2001.10.7-2001.10.11	상해	우체국금융의 인터넷 뱅킹 현황 중국 우체국금융 서비스의 발전 동향
			우편독점 및 보편적 서비스 역무 중국우정공사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
5차	2002.5.9-2002.5.15	서울 제주	인터넷시대의 우편사업 추이 우편 물류사업 시장 조사
			우편의 물류산업 발전 방안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우정서비스 동향
6차	2002.10.27-2002.11.2	북경	우정사업 업무구조의 효율화 우정사업 업무구조 및 조직구조 최적화
			우체국금융의 신규 사업 진출 방안 우체국금융의 신규서비스 발전 해법
7차	2003.7.5-2003.7.11	서울 제주	한국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및 전망 중국의 우체국보험 사업현황
			한국의 우정사업 경영평가 시스템 중국우체국 성과평가 체계

25) 문성철, “[한·중 우정연구 교류협력 워크숍] 15회를 되돌아본다”, 『우정연구』, 제70권, 우정경영연구소, 2007, p.80.

8차	2003.11.2- 2003.11.8	상해 북경	우체국금융의 자금관리: 현황과 이슈 우체국예금 자금의 독립적 운용 연구
			우체국EMS서비스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우체국EMS서비스 비용 및 사업전략
9차	2004.6.5- 2004.6.11	서울 제주	소포서비스 원가계산 통상소포 원가계산 방안
			우체국금융 전략 환경변화에 따른 우체국금융 발전방안
10차	2004.11.14- 2004.11.20	상해 북경	우정사업 원가관리방안 우정사업 노무비 관리방안
			우정사업 네트워크 발전방안 EMS서비스 발전을 위한 항공 네트워크 발전방안
11차	2005.6.24- 2005.6.28	서울 제주	디지털시대의 우편서비스 중국의 주요 계정관리 생물학적 인식시스템을 적용한 IC현금카드 개발 일반 가정의 인터넷뱅킹 이용 현황 배달 개혁에 관한 연구 고객 지향적 우체국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12차	2005.11.7- 2005.11.13	상해 북경	고객 지향적 우편사업에 관한 전략적 변화 VIP 고객에 대한 우편 서비스
			우체국 금융사업의 역량분석 우체국 금융의 개혁과 변화
13차	2006.5.11- 2006.5.17	서울 제주	한국의 우편 CRM 시스템 소개 중국 상업적 우편물 서비스의 발전적 전략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의 IT투자 전략 우체국금융 정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방안
14차	2006.10.26- 2006.11.1	북경	우편서비스의 국제적 협력: 한국 EMS서비스 사례 중국 우편사업 대외협력 및 시장경쟁 발전방안
			우체국금융 서비스 발전방안 중국우체국 금융, 자산업무 발전 방안
15차	2007.6.21- 2007.6.27	서울 제주	우체국 보험의 경영실태 평가체계 중국우편법 개편 및 경영체제 변화
			통상우편 배달국 취급비 현황 및 전망 국제소포, EMS 배달국 취급비 현황 및 전망

2.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현황

1)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의 필요성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은 양국경제가 차지하는 세계 속의 비중과 그 역동성을 고려할 때, 정보화에 바탕을 둔 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양국의 상호 경제적 협력과 정책의 협조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속에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전자상거래의 협력 필요성은 우선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역동성과 세계중심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즉, 동북아 e-Governance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지역에서 한·중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이 필요로 한다. 즉, 동북아 e-Governance 구축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지역내에서는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내 지역별 정보격차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한·중간 정보격차도 많기 때문에 동북아지역내에서의 정보격차와 한·중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필요하다. 즉,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통하여 동북아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지역이 동북아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여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시장(digital market)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필요하다. 한·중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동북아 전자상거래발전을 위해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이 필요한데 한·중 양국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표준화, 거래규정, 인증절차, 보안문제, 관세협정 등 제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²⁶⁾

다섯째, 동북아지역이 세계 디지털을 선도하는 디지털강국으로 성장하고 동북아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 한·중간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전자상거래 핵심기술협력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표 10> 양국에 미치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의 이점

국 별	구 체 적 인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동북아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 우수한 전자상거래기업이나 제품의 국제화 진전 · 중국시장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구축을 통한 시장선점가능

26)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여건의 가능성과 과제”, 2003.7.1.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문화권의 형성과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술 확보 · 비교적 싼 값으로 전자상거래관련 우수한 기술 확보 가능 · 인터넷 통신망 및 백본시스템 등 전자상거래 기반시설 구축의 진전
----	---

자료 : 김근동, “인터넷산업의 한·중·일 협력방안”, 디지털시대 한·중·일 산업협력방안 심포지엄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00.11.22, p.118. 참조하여 재작성.

전자상거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첫째,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의 입지가 강화되고, 둘째, 양국간의 협력을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셋째, 전자상거래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세계 인터넷시장의 심장 센터로 발전할 수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산업을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으로 육성, 보호해서 기존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르는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다섯째, 한·중 양국간의 수평적 분업확대와 분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현황

한·중 양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무역과 투자, 문화, 제조 및 IT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한·중 양국간 교역은 무려 12배나 늘어 우리나라와의 최대교역국이 되었다. 최근의 부산 APEC 회의를 통한 양국간 IT 등 중점 산업협력의 강화 및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향후 한·중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사료된다.²⁷⁾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은 지난 2001년 10월 31일 개최된 한·중 전자상거래 고위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표 4>와 같이 협력방안이 합의되어 그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11> 한·중 전자상거래 고위실무협의회 합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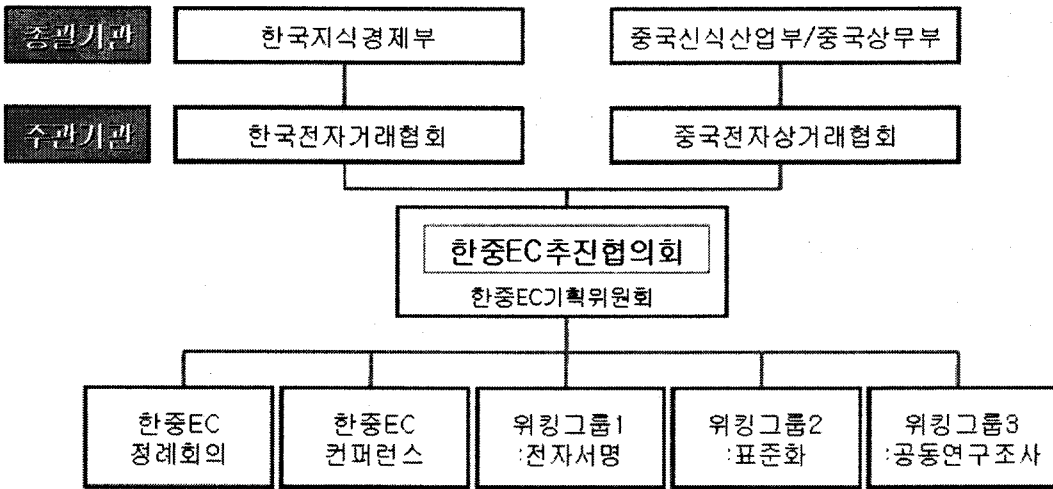
항목	주요 내용
1	전자상거래관련 법, 제도 및 통계 등의 정보공유
2	양국간 표준화, 소비자보호 및 기술적 호환성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3	전자무역 실현
4	전자상거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5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위원회 설치
6	‘한·중 경제무역협력사이트’ 공동구축

자료 : 허용석, “동북아 전자상거래 협력현황 및 향후 전망”,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 p.83.

27) <http://www.kcebiz.or.kr/chinakor.htm>, 2006.12.1.

2004년 4월 한·중 e비즈니스교류회를 개최한 결과 7월에 한국전자거래협회는 중국의 상해전자상무 협회 및 상해소기업지원센터와 e-AMP(www.eamp.co.kr)와 상해 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는 e프리웨이(www.efreeway.com.cn)의 연계를 추진하였고²⁸⁾ 2005년 한·중·일 RFID/Traceability포럼을 개최하여 한·중·일 RFID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²⁹⁾

성공적인 전자상거래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너무 세부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또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및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경험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이다.³⁰⁾



자료: 한·중EC추진협의회 홈페이지(kcebiz.or.kr).

[그림 5] 한·중 전자상거래협력 추진 체계

<표 12>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의 주요과정 및 내역

일시	과정	내용
2000.6	한·중·일 e-비즈니스 포럼 개최	3국 전자상거래협회 공동으로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선언' 채택
2001.9	제2차 한·중 산업정책분과위원회 개최	한·중 EC 협력사업 추진 약속
2001.10	한·중 전자상거래 고위실무협의회 개최	한·중 EC 협력사업 본격개시,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보고서 발간
2001.12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원칙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28) 김준배, "한·중 e비즈니스, 내년에 본격화 전망", 「전자신문」, 2004.11.9.

29) 김상범, "한·중·일 RFID분야 공조화 가속...25일 포럼개최", 「아이뉴스24」, 2005.5.24.

30) 윤광운·김철호,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p.357.

2002.1	중국전자상거래협회와 EC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국 북경
2002.4	제6회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대회	대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2002.12	제3차 한·중 산업정책분과위원회 개최	한·중 산업협력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인식공유, 'e-비즈니스 백서(한·중·일)', '전자상거래 한·중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
2003.10	한국-대만 e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한국 서울
2003.11	한국 e비즈니스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2003.12	한·중 e-비즈니스 기업 상담회 개최	중국 상해
2004.4	한국-상해시 e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기업 상담회 개최	한국 서울
2004.6	APEC E-Commerce Fair	한국측 공식 창구기관으로 참여, 한국공동관 운영
2004.9	'한·중 EC추진협의회' 공식 발족	중국 북경
2004.11	상해시전자상거래업종협회 등과 EC협력을 위한 MOU 체결	중국 상해
2005.3	중국 해남성 '전자상거래 포럼 및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추진회' 공동 개최	중국 해남
2005.5	한·중 EC협의회 정례회의로서 공동프로젝트 제안 및 논의 및 한·중·일 e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상해
2006.3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동 협력추진회 개최	중국 해남성
2006.4	한·중·일 EC추진협의회발족을 위한 MOU 체결	중국 북경
2006.4	한·중전자상거래 협력회의-한·중 EC추진협의회의 설치 제안, 한·중 전자상거래 CEO포럼 개최	한국 서울
2006.7	2005 한·중·일 전자서명과 CA응용세미나	중국 북경
2006.12	한·중·일 e비즈니스 컨퍼런스 2006 공동개최	한국 서울

자료 : 한·중EC추진협의회(kcebiz.or.kr)의 홈페이지와 한국전자거래협회 내부자료 정리

한·중EC추진협의회는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표 12>와 같다. 정례회의를 통해 양국 민간 전자상거래 전문가간의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도모 및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양국간

e-비즈니스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프로젝트로서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법, 제도 및 통계, 양국간 전자상거래 표준화, 인증,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기업의 투자유치 및 소비자보호 등을 추진하였다. 국제컨퍼런스로서 한·중·일 e-비즈니스 컨퍼런스, 한·중·일 RFID/Traceability, 한국 e-비즈니스 기업의 중국진출전략 세미나 외 다수를 개최하였다. 중국 전시 참가 및 수출지원 상담회 개최 실적으로 e-Business Expo China 2005 한국관, 2004 중국 APEC 전자상거래박람회 한국관, 한·중 e-비즈니스 기업 상담회, 한국-상해시 e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대만 e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상담회 외 다수가 있다.

〈표 13〉 한·중 EC추진협의회 주요 사업

	정례회의	전시상담회	정보서비스
내용	한·중EC추진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를 보고	양국 EC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 행사 개최	중국 지역별 전자상거래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최신 EC 뉴스 및 다양한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
경과	민간차원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정기적 교류, 한·중 전자상거래 민간협의체 운영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일정관리, 각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 총괄 및 점검, 공통 이슈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중국 전시회 참가 및 수출지원 상담회 개최	온라인 정보서비스, 특화 정보서비스, 뉴스레터 등

자료: 전계서

3)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내에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내용

(1) 동북아 e-비즈니스 환경연구/분석 보고서

한·중·일 e-비즈니스 환경연구/분석 보고서³¹⁾에서는 한·중·일 e-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동향, 한·중·일 협력 Item의 방향연구, 산업별 협력사례를 다루면서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제언으로서 장애요인과 신뢰기반 전자상거래시장을 언급하고 있다.

(2) 한·중·일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협력환경 구축방안

한·중·일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협력환경 구축방안³²⁾에서는 전자산업의 현황, 전자상거래현황, 전자

31) 한국항공대학교,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을 위한 동북아 e-비즈니스 환경 연구/분석보고서」, 한국전자거래협회, 2004.11.

32) 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중·일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협력환경 구축방안」, 산업자원부, 2004.11.

산업의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필요성, 비즈니스모델개발, 세부추진과제 도출, 협력모델 구축 세부추진 방안을 다루고 있다.

(3)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 최종보고서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 최종보고서³³⁾에서 2003-2004년의 2개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한중일 EC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 및 준비회의 개최를 보고하고 있고 한중일 3국간 정부 및 민간레벨의 협력 모색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산업협력네트워크 구축시범사업 연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중일 e-비즈니스 포럼개최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4) 최근의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주요내용

<표 14>에서와 같이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서 한·일협력 사업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한·중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표 14〉 최근의 한중일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주요내용

	한·일 협력사업	한중 협력사업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한일EC추진협의회 민간 워크샵(05.10.18-20)- RFID실증실험 현황보고, 한일 트레이서빌리티 추진, 전자정부현황, 인증·공증, 전자부품업계의 동향 · 제8회 한일EC정책협의회-양국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국제논의에서 양국의 협력추진, 민간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지원 · 한·일워킹그룹-한·일 U-Traceability Standard, 핵심요소기술 및 정보교류, 실증실험 및 시범사업추진, 보급, 확산추진을 위한 지원대책 4개그룹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EC추진협의회 정례회의(05.5.13)-공동프로젝트 제안과 기획 · 한·중 e-비즈니스포럼개최 및 중국국제 전자상거래 박람회 개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EC추진협의회 워크샵-제1차 일본전문가초청 및 세미나 개최(06.6.15), 제2차 일본 EC 선진사례 시찰단 파견(06.8.23-25), 제3차 일본전문가초청 및 세미나개최(06.10.26-27) · 한일 EC정책협의회-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일 전자부품 서브커미티, 한일 RFID/Traceability 정보교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회의(06.4.28)-한국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정책소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방안논의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EC추진협의회 워크샵- 제1차 전자정부워크샵(2007.5.18-19), 제2차 RFID for Digital Innovation(07.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동향보고서 발간

33)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EC정책협의회(07.11.28)-제9차 한일 EC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제5차 한일 RFID/Traceability 정보교류회, 제10차 한일 EC정책협의회 정보교환 ·일본 전자상거래 추진동향보고서 발간 	
--	--

자료 :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사업」, 산업자원부, 2006.1.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성과보고”, 2007.5.
 한국전자거래협회, 「07년도 전자상거래 촉진사업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8.1.

IV. 한·중 전자상거래사업의 발전방안

1. 협력사업의 비전과 로드맵개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비전과 로드맵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별 로드맵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전과 로드맵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거의 단발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비전 제시와 그에 따른 로드맵의 설정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한·중의 정보격차 그리고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의 거대성을 감안하여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추진조직의 정비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한·중전자상거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한·중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조직이 너무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요위원회로서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있고 한·중경제공동위원회,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 우정교류협력관련기관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은 이러한 협력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한·중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그 산하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중경제공동위원회,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 우정교류협력관련기관 등을 한·중협력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산하에 분과별 협력위원회를 두고 한·중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 전자상거래협력도 한·중협력위원회 산하에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관련협력사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조직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협회측에서 지원조직과 사업예산과 추진력 등의 이유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현재 한·중간의 실질적인 거래를 유발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차원에서의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중간 협력을 위한 한·중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위한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유도하여 민간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합·연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도 회의위주의 협력사업에서 벗어나서 한·중전자상거래를 구현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민간 전자상거래협력단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차원에서의 충분한 예산확보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없었던 관계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한국전자거래협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한·중 전자상거래협력 사업도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에는 협력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이 중요한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충분한 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확보를 통하여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4. 정보격차예소를 위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전개

<표 15>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보화 지수 비교 (기준: 2007)

항 목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보화 관련	국가정보화지수(2007)	3	11	42	33
	e-비즈니스준비도(2007)	16	18	56	57
	전자정부준비지수(2005)	5	14	57	50
	정보사회지수(2005)	10	18	43	42
	네트워크 준비지수(2006)	19	14	59	70
	디지털기회지수	1	2	77	51
	기술인프라부문 국가경쟁력(2007)	6	20	-	-
	온라인참여자수	4	16	25위 밖	25위 밖
인터넷 관련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2006)	4	14	20위 밖	20위 밖
	사이버 보안지수	22	25	36	38위 밖
	초고속인터넷 비용(저가순)	2	1	22	39위 밖
	IPv4 주소 보유현황	9	1·0위 밖	4	10위 밖
	IPv6 주소 보유현황	5	3	10위 밖	10위 밖
	국가최상도메인보유	13	7	14위 밖	14위 밖
	국가별 AS번호 보유	10	10위 밖	10위 밖	2
	스팸전송(2006)	3	13위 밖	2	11

자료 : 최석범·이용근·이충배·김창봉·김시중·박경희,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Governance”, 「국제상학」, 제2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3, p.183.

<표 15>와 같이 한·중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이러한 한·중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2007년도 국가 정보화지수는 한국이 3위, 중국이 42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도 초고속 인터넷가입자수에서도 한국이 1 위이지만 중국은 20위권밖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차원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정보격차는 상당하고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낙후된 정보인프라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보격차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의 정보기반이 다르므로 한국의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이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5. 한국의 우수한 전자상거래사업 모델의 전파

한국의 지속적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의 각종 전자상거래 정책사업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전자상거래 정부지원모델을 중국에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중국정부 측에 전파하여 한국의 모델에 상응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한국의 전자상거래표준과 규격이 중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한국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산업별 B2B시범사업, B2B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업종별 ERP템플릿 개발지원사업, 업종별 ASP보급 확산사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모델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중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⁴⁾

6. 한중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사업의 전개

범아시아 전자상거래협력사업(Pan-Asian E-Commerce Alliance: PAA)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전자상거래 구현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한중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중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중간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중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방향 전환

지금까지 한국전자거래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주로 한일위주로 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한일중심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34) 한국 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중·일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협력환경 구축방안」, 산업자원부, 2004.11, pp.67-73.

V. 결 론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한국전자거래협회의 주관하에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은 한중협력 사업위주보다는 한일협력 사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와 향후 잠재력을 감안하여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보다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에 치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도 한중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교류협력사업의 차원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별 로드맵도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 전자상거래관련 정부차원의 추진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정부 한·중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그 산하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중경제공동위원회, 한·중산업협력위원회,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 우정교류협력관련기관 등을 한·중협력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산하에 분과별 협력위원회를 두고 한·중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업의 추진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한·중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은 이러한 한·중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각종 전자상거래 정책사업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전자상거래 정부지원모델을 중국에 전파하여 한국의 모델에 상응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한국의 전자상거래표준과 규격이 중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중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협력사업을 통해 한중간 전자상거래를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한일중심에서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정부의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한·중 전자상거래협력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성공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정부기관이나 관련협회, 기업들과의 호의적인 판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경우 한중교류협력사업으로서 한중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을 연구하였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관계로 그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후 연구과제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문,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연구, 2006.
- 과학기술부, “제9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첨단 기술 협력 로드맵 추진합의”, 보도자료, 2007.7.4.
- 金堅敏, “中國における電子商取引企業のビジネスモデル”, 『研究レポート』, No.284, 富士通總研(FRI)經濟研究所, 2007.2.
- 김근동, “인터넷산업의 한·중·일 협력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11.22.
- 김상범, “한·중·일 RFID분야 공조화 가속...25일 포럼개최”, 『아이뉴스24』, 2005.5.24.
- 김준배, “한·중 e비즈니스, 내년에 본격화 전망”, 『전자신문』, 2004.11.9.
- 김철진·박찬주, “중국인터넷시장진출현황과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논문집』, 제23집, 경북전문대학, 2005.
- 문성철, “[한·중 우정연구 교류협력 워크숍] 15회를 되돌아본다”, 『우정연구』, 제70권, 우정경영연구소, 2007.
- 민윤경, “중국 인터넷전자상거래 시장환경과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POSRI경영연구』, 제1권 제2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1.
- 박영태·채명수·정종식,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한 소고”,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2.
- 산업자원부,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실무협의회개최(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협의)”, 1999.3.5.
- 외부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무역·기술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국가기록원, 1992.
- 윤광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무역분쟁에 관한 연구-중국의 전자상거래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3.6.
- 윤광운·김철호,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국제상학』,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 이용근·김창봉·김시중·박경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향후전망”,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 이제홍, “한국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5.6.
- 최광학,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해야”, 「나라경제」, 2005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최석범, “중국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8.3.
- 최석범·이영찬·장유식,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6권 제2호,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8.
- 최석범 · 이영찬, “중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6.25.
- 최석범 · 이재길 · 임광열 · 최해란, “중국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6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6.12.30.
- 최석범 · 이용근 · 이충배 · 김창봉 · 김시중 · 박경희, “동북아 전자상거래 공동체 구성을 위한 e-Governance”, 「국제상학」, 제2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3.
- 최재섭 · 배두환 · 송호달,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3.
- 통계청, 「2007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결과」, 2008, <http://www.nso.go.kr>.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中, 인터넷 쇼핑물 급증”,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9.2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 e비즈니스백서」, 2007.12.
- 허용석, “동북아 전자상거래 협력현황 및 향후 전망”,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여건의 가능성과 과제”, 2003.7.1.
- 홍성범, “한·중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 과학기술-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Chindai Journal」, 포스 경영연구소, 2007.10.
- KOTRA,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 2005.12.
- 한국항공대학교,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을 위한 동북아 e-비즈니스 환경 연구/분석보고서」, 한국전자거래협회, 2004.11.
- 한국전자거래협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중·일 전자산업 전자상거래 협력환경 구축방안」, 산업자원부, 2004.11.
-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중일 전자상거래 국제기술협력사업(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5.1.
- 한국전자거래협회,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성과보고”, 2007.5.
- 한국전자거래협회, 「07년도 전자상거래 촉진사업 한중일 e비즈니스 국제협력최종보고서」, 산업자원부, 2008.1.
- 网商崛起, 「2007中國网商發展研究報告」, 2007.
- iResearch, 「2007-2008中國网络購物發展報告」, 2008.
- <http://www.kcebiz.or.kr/chinakor.htm>, 2006.12.1.